

대출 조건 완화에 은행대출 숨통

국민은행, 신용대출 최대한도·제한 조치 일부 완화 하나·우리·신한은행 등 비대면 신용대출 속속 재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에 대출 조기에 나섰던 시중은행이 새해 들어 점차 대출한도와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비대면 신용대출이 속속 재개되고, 일부 은행은 신용대출 최대한도 축소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등 연초 은행 대출에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시행한 신용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이날부터 일부 완화했다.

최대한도를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춘 의사, 변호사 대상 신용대출은 최대한도를 이날부터 3억원으로 올렸다.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춘 일반인 대상 비대면 전용 신용대출 상품인 'KB 스타 신용대출'의 최대 한도 역시 이날부터 2억원으로 조정했다.

국민은행은 신용대출 안정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부분의 다른 주요 은행들은 연초에도 적정 수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

가는 차원에서 신용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적용해 온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으며, 우리은행도 신용대출 우대금리 축소와 최대한도 조정(1억원)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오는 6일부터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직군별로 최대 1억5000만원이었던 기본 한도가 최대 5000만원으로 조정되고, 전문직 대상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도 기존보다 5000만~1억원가량 줄어든다.

중단했던 비대면 신용대출도 이날부터 정상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하나은행은 5일 비대면 신용대출 주력 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을 재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24일부터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대면을 통틀어 가장 수요가 많은 '하나원큐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11일부터 중단했던 비대면

신용대출 주력 상품인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판매를 이번주 안에 재개한다.

앞서 신한은행도 연말까지 중단했던 직장인 대상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솔편한 직장인 신용대출'을 이날 1일부터 재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역시 연말까지 중단했던 직장인 고신용자 대상 신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을 지난 1일부터 다시 내주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하순부터 2000만원이 넘는 모든 신규 가계 신용대출을 막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이날부터 이를 해제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영업점 가계대출 우대금리를 낮춰 적용해왔으나 이날부터 다시 기존 우대금리 체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최대 우대금리가 현재 1.0%에서 1.4%로 0.4%포인트 높아진다. 신용대출은 최대 우대금리가 현재 0~0.25%에서 0.8~1.2%로 올라간다.

다만 농협은행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주택관련 대출에 적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한시적으로 강화한 조치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한다. 농협은행 주택관련대출은 DSR 100%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초부터 DSR이 80%를 초과하면 대출이 거절돼 왔다. /연행뉴스

박서홍 신임 농협 전남본부장, 구례 AI 방역현장서 첫 일정



박서홍(사진) 신임 농협 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이 4일 첫 일정을 구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현장에서 시작했다.

농협 전남본부는 박 본부장과 조재원 구례농협 조합장, 전창동 구례축협 조합장 등으로 구성된 합동방제단이 이날 구례 소하천 인

근 가금농가를 긴급 방역했다고 밝혔다.

방제단은 구례농협 농작업대행용 드론과 구례축협 공동방제단 방역차량을 동원해 소독작업을 했다.

박 본부장은 방역현장에서 "올해는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농산물 재배면적 관측시스템'을 도입해 고령화·농업인구 감소 등 농업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스피 새해 첫날 사상 최고 2944선 마감

6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코스피가 새해 첫 거래일 2% 넘게 오르며 3000선 고지를 눈앞에 뒀다.

4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70.98포인트(2.47%) 오른 2944.45에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2900선을 넘어섰다.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이다.

지난해 '동학개미운동'을 이어가듯 개인이 1조 285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기관은 1조1851억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842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44.45 (+70.98)
▲ 코스닥	977.62 (+9.20)
↓ 금리(국고채 3년)	0.954 (-0.022)
↓ 환율(USD)	1082.10 (-4.20)

코스닥은 9.20포인트(0.95%) 상승한 977.62에 거래를 마쳤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지방은행 최고 수익성 갖춘 리딩뱅크로 도약 다짐

송중욱 은행장, 비대면 시무식서 'ESG 경영철학' 화두 내세워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철학'을 화두로 내세웠다.

송중욱 은행장은 4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 'KJ상생마루'에서 비대면 시무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시무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모든 영업점과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다.

송행장은 이날 경기침체 장기화와 핀테크(금융정보기술)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 등 치열해진 경쟁환경 속에서도 내실있는 질적 성장과 체질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의 성장을 다짐했다.

지방은행 최고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갖춘 '리딩뱅크'로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는 ▲ESG 경영철학 바탕 포용·생산적금융 주력 ▲책임경영 기반 구축 ▲선제적 자산건전성 관리 ▲활력 있는 조직 조성 등을 제시했다.

세부 실천방안으로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강화 ▲각 영업 부문별 수익성과 비용 효율성에 근거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영업력 강화 위한 비즈니스 모델 정립과 디지털역량 강화 ▲코로나 시대 이후 대비 선제적인 자산건전성 관리 등을 들었다.

그는 "2021년에는 코로나19 위기와 디지털 급



송중욱 광주은행장이 4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2021년 시무식에서 새설계를 밝히고 있다.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송행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철학'을 화두로 내세웠다. <광주은행 제공>

용산업의 치열한 경쟁에 맞서 변화와 혁신을 과감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고객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기본으로 우수한 경영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사명감으로 지역밀착경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세열굴

"성과 창출해 지역사회와 공유할 것"

김태욱 한전 광주전남본부장

"기본 원칙과 공감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다가오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신임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장에 최근 취임한 김태욱(58) 본부장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본부 운영 방침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본부 전 직원이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부서간 협업을 통해 현안 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자"며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출신인 김 본부장은 영등포고, 아주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한전에 입사한 후 남서울건설지사장, 계통계획실장, 경기북부본부 구리전력지사장, 기술기획처장 등을 역임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소통 통해 고객과 함께하는 본부 만들 것"

성도남 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촌기반시설(SOC) 구축사업과 그린에너지사업 등 미래성장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제13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한 성도남(58) 전 농어촌공사 기획조정실장은 4일 업무를 시작하며 이 같이 포부를 밝혔다.

성 신임 본부장은 "현장중심의 조직운영과 사업관리로 내실경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철저한 안전관리와 지역인 소통 등을 통해 고객과 함께

하는 본부, 투명하고 청렴한 본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성 출신인 성 본부장은 광주상업고등학교, 조선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2년 입사해 예산부장, 기획총괄부장, 영광지사장, 기획관리처장,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